

## 安軸의 詩에 있어서 意識세계와 主題의식\*

강 동 석\*\*

<目次>

- |                  |                   |
|------------------|-------------------|
| I. 서론            | III. 內面主義와 超世的 態度 |
| II. 現實主義와 反省的 宣言 | IV. 결론            |

<국문 초록>

이 글은 안축의 시세계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두 의식세계와 그 주제의식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이는 그간 주목했던 안축의 현실주의적 작품군과 무관할 듯 보이는 내면주의적 작품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그의 시세계의 문학적 편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선 안축의 시는 ‘풍속의 바른 것과 그른 것, 백성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관한 것이 열에 아홉이다.’라고 했던 이제현의 언급처럼, 풍속과 백성에 관계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의 모습과, 관료서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보이는 반성적 선언, 그리고 사회를 혁파하고자 노력했던 모습 등은 그의 대표적인 시세계의 모습이다. 이러한 시세계의 기저에는 성리학의 수입이 있으며, 결국 이와 같은 의식과 주제가 녹아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시세계에는 현실주의와 충위를 달리하는 내면주의적 작품 성향도 많다. 이는 외부 세계나 주위환경의 영향을 내면적인 경험이나 정신에 적

용시키려는 문학적 경향으로서, 그가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유구함을 작품화하는가 하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선계를 동경하는 작품을 남겼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작가가 지속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선계로의 동경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이 주는 심적 안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이는 현실세계에서의 고뇌로 인한 초세적 태도를 견지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처럼 안축 시는 현실주의적 작품군과 내면주의적 작품군이 공존하여 시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서로 무관한 듯하지만 긴밀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서, 안축 시를 해석해내는 데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안축, 현실주의, 내면주의, 반성적, 초세적

### I. 서론

安軸(1282-1348)의 시를 감상하다 보면, 굵직한 두 선의 의식세계와 주제의식이 또렷이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이제현이 “그가 감동하고 분개하며 지은 작품이 풍속의 바른 것과 그른 것, 백성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관한 것이 열에 아홉으로 그것을 읽으면 사람을 슬프게 한다.”<sup>1)</sup>라고 했던 언급처럼, 백성의 풍속을 살피고 감개한 바를 적은 작품군이다. 이것은 그의 시세계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2)</sup>

1) 『關東瓦注』, 「序文」, “其感憤之作, 關乎風俗之得失, 生民之休戚者, 十篇而九, 讀之使人慘然.” (『韓國文集叢刊』卷2, p.451.) (이하 출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권수와 면수만 표기한다. 아울러 본고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웹DB와, 정우상 외 『(國譯)謹齋先生文集』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2) 일찍부터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종진, 「안축의 시세계」, 『泰東古典研究』 10, 태동고전연구소, 1993, pp.65-82.; 최용수, 「안축과 그의 자연관」, 『배달말』 22, 배달말학회, 1997, pp.185-207.; 유호진,

\*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단’의 지원비를 받았음.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k2d1s@korea.ac.kr

그리고 다른 한 작품군은 자연의 유구함이나 아름다움 혹은 그를 통한 어떤 초세적 정신 지향이 엿보이는 것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작품들은 현실주의<sup>3)</sup>를 지향했던 그의 시세계와 다소 상충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를 배제하고서는 그의 시세계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sup>4)</sup>

처음 필자는 이 두 의식세계와 주제의식이 당대 다른 사대부와의 어떤 변별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시를 감상할 수록 이제현이나 이곡 등 당대 문인들에게서 보이는 문학적 면모와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논문과의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특히 시 말미에 自注를 통해 밝힌 작가의 지향점, 그리고 수사적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 II. 現實主義와 反省的 宣言

고려 후기 문학은 성리학의 도입으로 인하여 문인들이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문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그간 단순히 구호에 머물렀던 忠孝와 같은 도덕적 덕목의 강

「고려 후기 사대부 한시에 나타난 정신지향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pp.31-66.; 이의강, 「근재 안축의 시문에 투영된 성리학적 사유체계」,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pp.43-62.

3) 본고에서 말하는 현실주의란 이상이나 관념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유 또는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다 넓은 범주를 가진다.

4) 최근 들어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일련의 노력이 있어 왔다. 하정승은 意境과 意象을 통해 안축의 미적 특질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안축 시의 표현 양식과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pp.143-170.), 원주용은 안축의 시문에 나타난 新意 양상을 밝히기도 하였다.(「근재 안축 시문에 나타난 신의 양상 고찰」,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1, pp.189-211.)

조를 비롯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 함께 아파했던 愛民의식이 비로소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에 고개를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두에서 전언한 것처럼, 이제현은 안축의 시세계에 대해 이러한 사상을 적극 반영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안축의 시가 온전히 다 남아 있지 않고, 그가 강릉도 존무사로 부임하며 지었던 2년간의 저작, 즉 119題 147首를 가지고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 하지만 단편을 보고 지층 전체를 유추할 수 있듯이 그의 시세계의 정수가 이에 있음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鹽戶 소금집

吾聞古聖人	내 들으니 옛날의 성인은
饗飧而理國	몹소 밥 지으며 나라를 다스렸는지
生民但耕鑿	백성들은 다만 밭 갈고 우물 파니
豈曾知帝力	어떻게 일찍이 제왕의 힘을 알았겠는가
後世利門開	후세에 이익을 얻는 길이 열리니
能臣爭獻策	유능한 신하가 다투어 계책 올렸네
權鹽起何時	소금 전매하는 일이 언제부터 생겼나
歷代沿不革	오래도록 그 법이 개혁되지 않았네
本國法最嚴	우리나라 고려의 법 가장 엄하여
歲課踰榷稽	해마다 세금이 농사 수확보다 많았네
自我出關東	내가 관동 존무사로 나오면서부터
傍海親督役	바닷가를 다니며 몹소 독려하였지
陋居如榷廬	누추한 살림은 오두막집 같았고
蓬門不掛席	쭉대 엮은 문에 자리조차 깔지 않았네
老翁率子孫	늙은이는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고
寸刻不休息	잠깐이라도 쉴 수가 없었네
冽寒汲滄溟	살을 쪼는 추위에 바닷물 길러오고
負重肩背赤	짐 무거워 어깨 등은 다 빨개졌네
酷熱燒煙煤	지독한 열기에 타는 연기와 그을음
熏煮眉目黑	끓이는 훈기에 눈썹은 검어졌네

門前十車柴 門 앞에 열 수레나 되는 나무도  
 不能供一夕 하룻저녁 땀감도 되지 못하네  
 日煎百斛水 하루에 백 섬의 물을 끓여도  
 未能盈一石 소금 한 섬을 채울 수 없으니  
 若不及期程 만약 기한 내에 대지 못한다면  
 毒吏來怒責 혹독한 관리는 성내고 꾸짖으리  
 輸官委如山 수송하는 관리는 산처럼 쌓아놓고  
 轉賣爲布帛 돌려 팔아 베와 비단으로 바꾸네  
 君王重功臣 임금은 공신을 중히 여기는지라  
 賞賜不屯惜 상금을 주는 데는 아끼지 않네  
 一人身上衣 한 사람 몸엔 걸친 옷에는  
 萬民苦深積 만백성의 괴로움이 깊이 쌓인 것  
 哀哉彼鹽戶 슬프구나 저 소금 만드는 집이여  
 破衣不掩脊 헤어진 옷은 등조차도 가리지 못하는구나  
 所以困難堪 괴로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逋逃晦形跡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어 버리네  
 若爲東海波 만약 동해의 푸른 물결 가지고  
 凝作雪山白 몽쳐 눈 산처럼 흰 소금 만든다면  
 官家恣取用 관가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쓸 것이니  
 與民俱有益 백성과 함께 이득 되겠지만  
 不然恤爾生 그렇지 못한다면 이 백성을 딱하게 여겨  
 時時霈慈澤 때때로 자애로운 혜택이나 내려주게 하소서  
 念此駐行驂 이런 생각하며 가는 말을 멈추니  
 君門九重隔 임금의 대궐은 아홉 겹이나 막혔네<sup>5)</sup>

당시 고려의 풍속에 대해 낱낱이 비판하는 시각이 담겨져 있으며, 한편으로 관직에 몸을 담고 있는 자신에게 자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애민 의식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우선 작가가 소재로 채택한 것은 鹽戶이다. 이는 곧 백성에게 시선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품의 서막을 「擊壤歌」<sup>6)</sup>로 하고 있는데,

5) 安軸, 『謹齋集』 卷1, p.463.

이는 태평시대에 대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라, 세금은 수확보다 많고 이를 수송하는 관리는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으며, 이를 알리가 없는 임금은 공훈을 쌓은 신하에게만 포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작가는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소금을 생산하는 서민의 헤어진 옷과, 만백성의 괴로움이 깊이 쌓인 비단옷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더 잘 드러난다. 특히 살을 쬐는 듯한 추위와 혹독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길러 오는 백성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금으로 인한 백성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다시 앞서 태평시대를 염원했던 것처럼, 동해의 푸른 물결이 雪山처럼 되어 관가나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구로 치달는다.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때때로 자애로운 은택이나 받게 해 달라는 바람을 신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풍속에 대한 성찰과 애민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이제현이 『관동와주』 서문에 적은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안축은 매우 바쁘게 남북을 오가며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sup>7)</sup> 하지만 시의 내용처럼 태평성대를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자괴감과 삶에 대한 반성은 작품으로 승화되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天曆三年五月 受江陵道存撫使之命 是月三十日發松京 宿白巖驛 夜半雨作有懷  
 천력 3년 5월에 강릉도 존무사의 명을 받잡고, 그달 30일에 송경을 떠나 백령  
 역에서 자는데, 밤중에 비가 오매 느낌이 있어

讀書求道竟無成 글을 읽어 도를 구해도 끝내 이룬 것 없었으니

6)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于我, 何有哉.”

7) 安軸, 『謹齋集』 卷1, 「二十九日 馬上即事」, p.462, “水旱相仍值歲荒, 推擠未去久遑遑. 力微任重今方困, 北去南來太似忙. 鷺立碧池荷背側, 燕飛黃隴麥頭昂. 新晴尚有薄陰在, 疏雨過山生晚涼.”

自愧明時有此行 밝은 시대에 이 행차가 스스로 부끄럽구나  
 但盡迂疏施實學 다만 최선을 다해 실학을 시행해야만 하니  
 敢將崖異盜虛名 감히 남들과 어긋나 헛된 명성을 훔치면 안되지  
 民生塗炭知難救 백성은 도탕에 빠져 구제할 길은 막막한데  
 國病膏肓念可驚 고향에 든 나라 근심은 생각만 해도 놀랄만하네  
 耿耿枕前眠未穩 베개에 기대어 잠 못 들고 누웠으려니  
 臥聞山雨注深更 누운 채 들리는 산비 소리는 더욱 심하구나<sup>8)</sup>

인용문은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안축이 강릉도 존무사로 명을 받고 가는 도중 백령역에서 묵으며 밤중에 비가 내리기에 그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직 존무사로 부임하기도 전인데 이처럼 자괴감과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수련부터 ‘自愧’라는 시어를 채택하여 반성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평생토록 도를 구하고 이를 실천하려 했지만 이제까지 이룬 것이 없어 너무도 부끄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결국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길 없는 자신의 무능함으로 이어지고, 이러저러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관료로서 가지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어떻게든 백성의 안위를 성취하려하는 마음, 거기에서 오는 고뇌 등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인용된 작품이 존무사로 발령을 받고서 가는 도중에 지은 작품이라면 다음 작품은 임기를 마치며 지은 작품으로 이를 통해 작가가 어떠한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至順二年九月十七日 罷任如京 過順忠關

지순 2년 9월 17일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가다가 순충관을 지나다

杖節入關口 의장과 부절로 관동에 들어와다가  
 還從此路歸 도로 이 길을 따라 돌아가고 있네

8) 安軸, 『謹齋集』 卷1, p.451.

朔風吹列戟 북풍은 열을 지어 창 끝에 불고  
 落葉滿征衣 낙엽은 나그네의 옷에 가득 내리네  
 未救民間病 백성들 괴로움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寧教國體肥 어찌 나라에 보탬이 되었겠는가  
 縱傾東海水 비록 동해의 물을 기울인다 해도  
 難洗二年非 두 해의 잘못을 씻기는 어려우리<sup>9)</sup>

수련은 문면 그대로 처음 관동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현재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추억하며 서서히 글을 시작하고 있다. 다시 작가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으로 시선을 돌려 늦가을 부는 북풍과, 쓸쓸히 자신의 옷에 떨어지는 낙엽을 묘사한다. 시절도 그러하지만 북풍과 낙엽이라는 쓸쓸한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심회를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다시 나라와 백성에게 시선을 돌린다. 존무사 부임 시절 백성의 괴로움을 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사유와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미련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이를 작가는 동해의 물을 쏟아 붓는다고 하여도 자신이 부임했던 2년간의 잘못은 결코 씻지 못할 것이라 표현하였다. 다소 과장된 듯 보이는 표현이지만 반성적 선언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다.

안축의 이러한 시적 경향은 부임이 끝날 무렵, 즉 이 작품을 쓰기 2달 전에도 절절히 묻어나 있으며,<sup>10)</sup> 이러한 작품을 그의 시세계에서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sup>11)</sup> 그리고 앞선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안축의 시세

9) 安軸, 『謹齋集』 卷1, p.467.

10) 安軸, 『謹齋集』 卷1, 「七月雨中發江陵府 二首」, p.465, “才疏無術救斯民. 衆責紛紛在此身. 解負今朝歸意迫, 雨師那得少留人. / 二載劬勞但爲民, 豈曾求媚自謀身. 寒松片月知吾意, 時逐征鞍遠送人.”

11)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들면 다음과 같다.

安軸, 『謹齋集』 卷1, 「六月三日 入鐵嶺關望和州作」, p.451, “路八關門眼暫開, 紅旗黑槩共徘徊. 忽驚職是憂民寄, 還愧身無濟世才. / 煙火里閭多索寞, 草萊城壘久摧頹. 可憐聚散邊鄉吏, 猶具衣冠禮往來.”; 「在和州始見二毛有感」, p.453,

계에서 주목되는 반성적 사유 안에는 반드시 백성들의 풍속을 살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過松澗驛 송간역을 지나가다**

一區幽澗隘 한 구역은 깊은 시내로 막혀 있고  
 雙嶺擁嵯峨 두 고개는 높은 산이 껴안고 있구나  
 牆北狐狸走 담장 북쪽으로 여우와 이리가 내달리고  
 門前雉兔過 문 앞에는 꿩과 토끼가 지나가는구나  
 地磽秋穫少 땅은 메말라 가을 수확은 적은데  
 洞密暮寒多 동네는 깊숙하여 저녁 추위가 매섭구나  
 聞說渠生理 듣자니 저들의 삶이란  
 踟躕獨自嗟 머뭇거리다 홀로 탄식만 한다 하네<sup>12)</sup>

안축의 시에는 유독 역이나 정자에서 차운한 작품이 많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온전치 않은 문집의 일부만 가지고 평가하기란 온당치 않으나 그가 남긴 작품 내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그 작품 안에는 반드시 풍속을 살피고 이를 작품화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작가는 전반부에서는 송간역 주변을 아무런 시적 장치 없이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의 전이를 시도한다. 다시 말해 전반부에서는 산수의 모습과 그 안에 평화롭게 노니는 동물을 평화롭게 묘사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메마른 땅에 매서운 추위가 감싸는 척박한 지리적 환경에다 백성의 생리가 머뭇거리며 탄식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백성의 풍속을 살피는 것과 관련해서 儒經이라 불리는 『周易』<sup>13)</sup>이나 『禮記』<sup>14)</sup>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에 유학을 공부했던 안축에게 이러

“壯健光陰夢裏經，百年身世亦堪驚。忙多閒小青山遠，謬算狂謀白髮生。沐罷塵冠漸羞澁，曉來菱鑑太分明。自知貴賤難逃事，有底未禁悲感情。”

12) 安軸, 『謹齋集』 卷1, p.459.

13) 『周易』, 「觀卦」에 “백성의 풍속을 관찰하여 교화를 베푼다.”라고 하였다.

한 사상이 자연히 몸에 배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풍속을 살피며 애민 의식을 작품에 담아내기도 하였지만, 한번 박한 풍속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풍속이 박하니 누가 내 가르침 따르며, 폐단이 깊어 이 시대 구할 재간 없네.[谷薄何人遵我教, 弊深無計救今時.]”<sup>15)</sup>라고 하여 어그러진 풍속과 깊은 폐단은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한 점을 보아, 지리적 환경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앞서 관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달리 환경적 요소가 풍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穿島詩 친도시**

小島出洪波 작은 섬이 큰 파도에 나와 있어  
 橫穿作通穴 가로로 뚫려서 굴을 이루고 있네  
 南北水互連 남북으로 바닷물 서로 이어져서  
 相激碎飛雪 부딪쳐 부서져 눈처럼 날리네  
 (중략)  
 使賓遠聞名 사신도 빈객도 멀리서 소문 듣고  
 來往無時節 오고 가기를 때를 가리지 않네  
 豈惟舟楫勞 어찌 배 짓는 수고만 하겠는가  
 亦浚民膏血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있네  
 霹靂不摧殘 벼락도 사납게 치지 않으니  
 此害何時絕 이 폐해를 어느 때 끊을 것인가<sup>16)</sup>

인용된 작품은 강원도 통천군 북부 흡곡현 남쪽에 있는 穿島에 대해 읊은 것이다. 서문을 보면 섬은 國島와 叢石의 한 자락으로서 섬 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중간에 굴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14) 『禮記』, 「王制」에도 “천자가 5년에 한 번씩 천하를 巡守할 적에, 太史에게 명하여 시를 채집하게 한 뒤에, 백성의 풍속을 관찰하는 자료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15) 安軸, 『謹齋集』 卷1, 「次韻許正言見寄」, p.453.

16) 安軸, 『謹齋集』 卷1, p.457.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왕래로 인하여 뱃사공은 말할 것도 없고 섬 주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그가 금강산에 대해 읊은 작품에서도 금강산의 풍경을 전반부에서 묘사하다가 돌연 시선을 인간 세상에 돌려서, “어찌하여 산 아래 사는 백성들은, 쳐다보고 때대로 얼굴을 찌푸리는가.”<sup>17)</sup>라고 하였는데, 善景보다 백성의 근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데에 핵심이 있다.

안축은 인용된 시 말미에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국도시, 총석정시, 천도시 3작품은 □(글자 빠짐) 끝의 뜻이 모두 한 가지로 같다. 이는 내가 귀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國島叢石穿島三詩, □終之意一同. 此余志所歸不敢不然.]”라고 하여 그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지 직접적으로 밝혀놓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도시」 서문을 보면, “그러나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관동의 명승으로는 국도가 가장 좋다 하고 유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와 노를 갖추어 술과 음식과 기생과 악기를 싣고 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니 이 지방 사람들이 그것을 괴로워한다. 그래서 장구 육언 시 한 편을 지어 훗날 사람들의 경계를 삼고자 한다.”<sup>18)</sup>라고 하였고, 또 「총석정」 시에, “창연히 바라보니 신선들 이미 흩어졌고, 보기 싫은 세속 사람 구름처럼 따르네. 정자 앞 갈매기와 해오라기 짝이 된다면, 인간 티끌세상 차취 씻어서 버릴 것을.”<sup>19)</sup>, “총석정 아름답다는 말 사방에 퍼져, 사신과 빈객이 다투어 찾아오네. 이웃 고을 보내고 맞이하는 관행으로, 분주하게 잔

17) 安軸, 『謹齋集』 卷1, 「金剛山」, p.458, “立峯巒劍戟明, 居僧齋罷坐無營. 如何山下生民類, 瞻望時時蹙頰行.”

18) 安軸, 『謹齋集』 卷1, 「國島詩」, p.454, “然好事者, 皆曰, 關東形勝, 國島爲最. 使遊賞者, 具舟楫, 載酒殮妓樂而妨農害民, 一方苦之. 因作長句六韻詩一篇, 以爲後來者之誡.”

19) 安軸, 『謹齋集』 卷1, 「次叢石亭詩韻」, p.456, “悵望仙徒已雨散, 厭看俗子如雲從. 若爲亭前伴鷗鷺, 掃却人間塵土蹤.”

치 자리 읊기고 있네. 정자 아래 아전들 ‘아휴’하고 한숨 쉬고, 술동이 앞 고운 기생은 노래 부르네. 백성들은 지금도 농사 일 잃으니, 아내와 자식 먹여 살릴 수 없네. 적은 곡식이나마 이미 비었으니, 한 번의 잔치가 원수보다 더하네. 어느 누가 그림으로 그려서, 임금과 재상에게 갖다 바칠까.”<sup>20)</sup>라고 하였다.

세 작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의 모습과 이를 혁파하고자 노력했던 안축의 현실주의적 의식세계이며, 그가 주석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가 시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주된 의식과 주제라 할 수 있다.

### Ⅲ. 內面主義와 超世的 態度

안축의 시에는 현실주의와 반성적 선언 외에도 자연의 유구함이나 아름다움에 대해 읊은 자연시<sup>21)</sup>, 知人과 주고받은 증별시, 그리고 驛이나 亭子에 차운한 작품도 다른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함의를 밝혀 안축의 시세계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다.

#### 又次三日浦詩韻 또 삼일포시에 차운하다

海上金龜頭戴瀛	바다 위 금거북이 머리에 영주섬을 이고 있다기에
珠宮此日入門扉	이 날 용궁으로 향해 문 안으로 들어와 봤지
蘭舟泊近丹書洞	작은 배로 붉은 글씨 있는 골짜기에 다가서니

20) 安軸, 『謹齋集』 卷1, 「叢石亭宴使臣有作」, p.457, “嘉言遍四方, 使賓競來訪. 傍邑慣送迎, 奔走移供帳. 亭下吏呀咻, 樽前仙妓唱. 民今失農業, 妻子不能養. 斗蓄已殫空, 一宴勝仇餉. 何人寫作圖, 持獻君與相.”

21) 본고에서 말하는 자연시란 자연에 대한 본질이나 아름다움, 또는 전원생활의 정취를 시의 중심체제로 삼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山水詩, 田園詩, 題畫詩, 詠物詩, 遊覽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綠霧輕飛瑤草汀 푸른 안개가 고운 풀의 물가에 가볍게 나는구나<sup>22)</sup>

시의 문면만을 본다면 작가의 감정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정을 서술하고 있는 편안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성향으로, 늘 바쁘게 쫓기며 살았던 자신을 표현했던 작품들과 반대편의 것이다.

우선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는 삼일포는 高城 부근에 있는 호수로서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서북쪽에는 암석으로 된 빼어난 봉우리가 있고 기암의 구렁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성 촌락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sup>23)</sup> 또한 전구의 붉은 글씨란 “永郎徒南石行”을 말하는 것으로 신라 화랑도가 이곳을 지나며 기념으로 적은 글씨를 말한다. 작가는 이 글씨를 보고자 배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초와 맞닿은 푸른빛의 안개가 시야에 들어온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이를 작품화 한 것이다.

인용된 작품을 짓기 전에도 삼일포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작가는 삼일포의 빼어난 정경, 즉 유리 같은 맑은 물, 연꽃 같은 봉래섬, 어여쁘고 아리따운 물속의 달, 흰칠한 소나무 등을 읊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슬프구나, 내 생의 늦은 고생이여, 눈에 가득 수심이 겨운 구름만 질네.”<sup>24)</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 분명 자연을 매개로 지난 삶에 대해 회회하며 자연의 유구함과 아름다움에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축이 자연의 유구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읊은 작품이 적지 않는데, 이러한 작품군이 안축 시의 특징임을 확인하려면 이 작품의 창작 배경

22) 安軸, 『謹齋集』 卷1, p.462.

23) 李晔光, 『芝峰類說』 卷18.

24) 安軸, 『謹齋集』 卷1, 「三日浦詩」, p.462, “仙境藏洞中, 琉璃水溶溶. 團欒小蓬島, 出水如芙蓉. 飛亭鳥斯革, 金碧混玲瓏. 憑欄四回眄, 三十六奇峯. 石佛在石龕, 萬古蒼苔封. 仙人駕黃鶴, 峨洋千萬重. 斷碣沒沙際, 丹書留筆蹤. 乘舟挹清芬, 簪履無由從. 娟娟水中月, 落落石上松. 嗟余生苦晚, 滿目愁雲濃.”

과 더불어 유사한 작품들과의 개연성, 그리고 작품의 정직한 해석에서 찾아야 한다.

#### 次安昌驛亭許正言詩韻 안창역 정자의 허정언 시에 차운하여

海上靑霞紫霧間	바다 위에 푸른 놀 붉은 안개 사이로
揖仙東望閭三山	동쪽 바라보며 신선에게 읊하고 삼신산을 묻네
倚欄人未須臾駐	난간에 기댄 사람은 잠시도 머물지 못하건만
萬古千秋物自閒	영원히 유구한 자연만은 절로 한가롭구나 <sup>25)</sup>

우선 바다라는 창작 배경과, 푸른 빛[靑], 자줏빛[紫]이라는 색채감,<sup>26)</sup> 놀[霞]과 안개[霧]가 덧대어지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뒷 구절의 신선[仙]과 삼신산[三山]에 조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갑자기 시적 동선은 자신에게 향하여 반전을 시도한다.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앞에 두고도 잠시 쉴 겨를조차 없는 자신을 애석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은 유구한 자연으로 향하고, 바쁜 자신과는 대조적인 자연의 한가함을 부러워하고 있다.

작가는 원수대에서도 이러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남긴다.<sup>27)</sup> 역시 자연의 유구함에 대해 노래하고 찬미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기고 있는 메시지가 현실에서 벗어난 선계에 대한 동경이며 이를 많은 작품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품, 즉 현실세계에 대한 괴로움으로 인하여 이를 벗어나고픈 귀거래 의식<sup>28)</sup>이나 선계를 지향하

25) 安軸, 『謹齋集』 卷1, p.451.

26) 안축의 시에는 인용된 작품 외에도 색채감이 뛰어난 작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永郎浦泛舟」(安軸, 『謹齋集』 卷1, p.461.)가 있다. “平湖鏡面澄, 滄波凝不流. 蘭舟縱所如, 泛泛隨輕鷗. 浩然發清興, 泝河入深幽. 丹崖抱蒼石, 玉洞藏瓊洲. 循山泊松下, 空翠涼生秋. 荷葉淨如洗, 蓴絲滑且柔. 向晚欲迴棹, 風煙千古愁. 古仙若可作, 於此從之遊.”

27) 安軸, 『謹齋集』 卷1, 「元帥臺詩」, p.455, “滄海支流作鏡湖, 青峯四擁水平鋪. 中藏別島非塵土, 上有高臺作畫圖. 日映波心跳尺鯉, 雨晴沙嘴戲雙鳧. 百年前輩風流散, 惟有長松老不枯.”

는 작품은 안축 외에 많은 사대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안축의 작품이 이들과 변별성을 지니는 것은 소재나 문학적 수사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렇다.

**詠梅 매화를 읊다**

關東處處賞江梅	관동 곳곳에서 강가 핀 매화를 감상해 봤건만
愛此新枝最後開	새로 난 가지에 마지막 핀 이 매화가 사랑스럽구나
風雨人間春掃地	인간 세상에 비바람 불어 봄이 이 곳 쓸었으니
出塵仙艷映粧臺	세속 떠난 신선의 고움이 아름다운 누대에 비추는구나 <sup>28)</sup>

작가가 소재로 삼은 것은 매화이다. 그리고 그 매화는 관동에서 본 매화 가운데 가장 늦게 피었고 더군다나 새로 난 가지에서 싹트고 있다. 그렇기에 작가의 눈에 유독 띄었고 이를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매화가 늦게 핀 이유에 대해 봄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며 ‘봄이 이곳을 쓸었다’고 하는 빼어난 문학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세속을 떠난 신선의 고움’으로 매화를 치환시켜 시적 분위기를 절정으로 올려놓고 이 매화가 누대를 비춘다고 하였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작품에는 과장법을 비롯하여 의인법 등 다양한 수사가 쓰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이다. 매화의 상징성은 傲霜孤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용된 작품에 이러한 속성이 녹아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인간 세상에서의 꾀꾀한 자태를 넘어서서 선계에서의

28) 이 외에도 그가 귀거래를 지향한 작품은 적지 않게 보이지만,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安軸, 『謹齋集』 卷1, 「次韻寄題張秀才幽居」, p.461, “勝地千金不易求, 山禽野鶴混沙鷗. 若爲卜築滄波上, 同把漁竿萬事休.”; 「次韻杆城客館詩」, p.462, “重岡四擁地幽幽, 歲久松鱗百尺脩. 官道樹深風滿院, 海門霞霽水明樓. 雨蓑漁艇平生約, 塵袂征鞍早晚休. 若賜城南鏡湖月, 舊居何必戀吾州.”

29) 安軸, 『謹齋集』 卷1, p.452.

고운 자태로 매화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작가가 지속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선계로의 동경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題灌木驛亭 관목역 정자에서 짓다**

彤雲赤日火鎖空	붉디 붉은 구름과 태양은 불타는 하늘에 있고
傍岸團茅在眼中	언덕 가에 초가집은 내 눈 안에 들어오네
珍重成林百年樹	진중히 오랜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坐來分我一襟風	앉았으니 한 아름 바람이 내게 불어오네 <sup>30)</sup>

**次興富驛亭詩韻 흥부역 정자의 시에 차운하여**

千畦禾黍舞風前	넓은 논밭 벼와 기장이 바람에 일러이고
喜見農家大有年	농가의 큰 풍년을 기뻐하며 바라보네
久倚陰軒清爽足	꽤 오래 그늘진 마루에서 쉬니 시원하기 그지없고
水禽飛過小溪煙	물새들은 작은 시내의 안개 사이를 날아다니는구나 <sup>31)</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축의 작품에는 정자에 차운한 작품이 많다. 대부분 풍속을 읊고 현실을 비판하였지만 인용된 작품들은 이와 상반된 작품들이다.

우선 전자의 작품은 자연의 유구함과 이에 따른 정신적 정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1·2구의 색채감은 그가 자연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사 방식으로 빼어난 색채감의 표현과 자연스러운 시각적 이동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시적 분위기의 전환을 피하는 전구에서 다른 작품이 인간을 표현했다면, 여기에서는 자연의 영원한 속성을 먼저 언급하고 이에 따른 심적 쾌유를 결구에 둔 것으로 보아 자연에 초점이

30) 安軸, 『謹齋集』 卷1, p.461.

31) 安軸, 『謹齋集』 卷1, p.452.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자유를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작품 역시 시적 배경이나 주제의식이 앞 장에서 다루어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풍속을 살피며 백성들의 괴로운 삶에 대해 비판적이며 애통해 했던 것과는 달리 풍년이 들고 살기 좋은 마을에 뿌듯해 하고 있음을 표면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여유를 가지고 쉬고 있을 때의 상쾌함과, 마침 안개사이를 후비며 날고 있는 물새들이 시야에 들어와 이를 묘사한 부분은 앞서 보았던 여유가 없고 늘 한탄하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자연이 주는 상쾌함과,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세적 자세가 읽힌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볼 수 없었던 비판적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태평성대에 대한 희구 역시 엿보인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자연을 통해 촉발된 고도의 정신지향이며 실제 그가 추구한 정신경계이기도 하다.

#### 六月十七日 三陟西樓夜坐 6월 17일 밤 삼척 죽서루에 앉아

夜色虛明水氣清	밤빛은 환하게 밝고 물 기운도 맑아
登樓俯檻聽江聲	누대 올라 난간에 기대어 강물 소리 들노라
兀然忘我無人見	바로 앉아 내 자신 잊으니 보이는 이 없고
風露滿空山月生	바람과 이슬은 허공에 가득하고 산 달이 뜨네 <sup>32)</sup>

작품의 전반부는 고요하고 맑은 풍경에 대한 묘사이며, 후반부는 이로 인해 감발된 정신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즉 전반부에서는 맑고 환한 밤빛과 물, 그리고 고요함 속에 들리는 강물 소리를 묘사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자연과 하나 된 정신경계로서, 보이는 사람 하나 없고 마침 바람과 이슬 자욱한 하늘과 산 위에 떠오르는 달을 묘사함으로써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明’과 ‘清’의 시어는 ‘兀然忘我’로 표현된 物我一體의 정신경계로

32) 安軸, 『謹齋集』 卷1, p.463.

가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兀然忘我’는 ‘坐忘’과도 같은 말로서, 莊子가 일체의 事物에 얽매이지 않고 言議를 잊은 채 세상을 한가하게 自適한다는 의미의 뜻이다. 결국 자연과 하나 된, 물아일체라는 고도의 정신세계를 경험한 작가가 이를 작품화한 것이다.

사실 물아일체란 儒佛道 三家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정신경계이며,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따라서 그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유구함 그리고 귀거래 의식을 노래한 작품들, 선계를 동경하거나 희구했던 작품들은 결국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의 異面, 즉 태평 시대 희구한 작품으로 봐야 온당할 것이다.<sup>33)</sup> 이로 본다면 결국 그가 시에서 담아냈던 현실주의와 반성적 선언의 작품군, 그리고 내면주의와 초세적 태도를 보였던 작품군이 서로 층위만 달리 할 뿐 사대부로서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본고는 안축의 시세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두 의식세계와 그 작품화를 고찰한 글이다.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안축의 시는 “풍속의 바른 것과 그른 것, 백성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관한 것이 열에 아홉이다.”라고 했던 이제현의 언급처럼, 풍속과 백성에 관계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의 모습과,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보이

33) 최용수는 안축의 자연관을 연구하며, 안축이 동경했던 선계, 즉 이상적 공간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은둔적 공간의 자연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있어야 할 당위를 절실하게 인식한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한 바 있다. (최용수, 앞의 논문, p.205.)

는 반성적 선언, 그리고 사회를 혁파하고자 노력했던 모습 등은 그의 대표적인 시세계의 모습이다. 이러한 시세계의 기저에는 성리학의 수입이 있으며 결국 이와 같은 의식과 주제가 녹아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시세계에는 현실주의와 충위를 달리하는 내면주의적 작품 성향도 하나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는 외부 세계나 주위환경의 영향을 내면적인 경험이나 정신에 적용시키려는 문학적 경향으로서, 그가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유구함을 작품화하는가 하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선계를 동경하는 작품을 남겼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작가가 지속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선계로의 동경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이 주는 심적 안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이는 현실세계에서의 고뇌로 인한 초세적 태도를 견지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본고를 통해 도출된 안축의 두 의식세계와 주제의식이 다른 문인과 크게 변별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필자도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꾀직한 두 의식과 주제가 안축의 시세계를 대변하며 다른 듯 보이지만 선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안축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상 그리고 가치체계 등과 세세하게 연관시키지 못한 점은 훗날 안축의 시세계와 고려 후기의 문학을 논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參考 文獻>

安軸, 『謹齋集』, 민족문화추진회, 1988.

李穀, 『稼亭集』, 민족문화추진회, 1988.

안축 저·정우상 외 옮김, 『(국역)근재선생문집』, 순흥안씨삼파대종회, 2004.

강동석, 「이색 자연시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종진, 「안축의 시세계」, 『泰東古典研究』 10, 태동고전연구소, 1993.

유호진, 「고려 후기 사대부 한시에 나타난 정신지향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 연구』,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원주용, 「근재 안축 시문에 나타난 신의의 양상 고찰」,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1.

이의강, 「근재 안축의 시문에 투영된 성리학적 사유체계」,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최용수, 「안축과 그의 자연관」, 『배달말』 22, 배달말학회, 1997.

하정승, 「안축 시의 표현 양식과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Abstract

*The Consciousness and Subjective Sensation for the Poems of Ahn-Chook*  
/ Kang Dong Seok\*

This is considered two consciousness and their subjective sensation which are the center of the poems of Ahn-Chook. This is the attempt to value his poems in an appropriate way through the association and probability of consciousness that may not be related to his realistic literary works that received attention in the meantime.

First of all, the poems of Ahn-Chook mainly consist of a custom and people as Lee, Je-Hyun mentioned; 'Nine out of ten are about right and wrong of a custom and the joys and sorrows of people.' Especially, the people who suffered from hardship derived from the geographic setting, the reflective declaration of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government officer and the endeavor to reform the society are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his poems. This has the background of Neo-Confucianism, its main idea, and its consciousness is well reflected in his poems.

Meanwhile, he wrote loads of poems that show inner-sides which are contrary to realism. This is the reason why he left many literary works on natural beauty and its perpetualness through trying to contact with nature and yearning for an ideal world; this is the literary tendency that tries to apply the effects of the surroundings to his internal experience and spirit. Especially, the reason why the writer tried to contact with nature and wrote about yearning for nature is because nature gives the emotional stability, and it is obtained by the idea that he stucked to become transmundane on account of anguish in reality. As above

showed, the poems of Ahn-Chook is formed with realistic literary works and consciousness literary works that he had paid attention. Although the two look unrelated to each other, in actual, they are effective in order to interpret his poems because of their close relations.

**【Key words】** Ahn-Chook, Realism, Consciousness, Reflective, Transmundane

\* Lecturer of Korea University / k2d1s@korea.ac.kr